

저팬 니트의 자랑 - JBKS 2010의 우수한 전시품들 <3/5>

◎ 컷-소편 - 향상된 제안력이 명확한 강점으로 돼

컷-소 존(cut-sew zone)에는 2009년보다도 1개사(社)가 적은 13개사(社)가 출품하였다. “지난 번 전시회 이후로 새로운 고객과의 접점(接點)이 많이 나타나서 비즈니스(business)가 커지고 있다.”고 도쿄도(東京都)의 프론티어 히구치(Frontier Higuti)는 말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자기 회사 공장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 타사가 의뢰하는 제품의 개발 설계로부터 제조까지 請負함),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의뢰자의 상표나 brand에 의한 생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 내외의 슈퍼 브랜드(super brand)와 관련이 있으며, 순(純) 일본산 컷-소 메이커(cut-sew maker)로서의 기술력은 물론 창출력에서도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텍스타일과 자수의 융합으로, 지금 시장에는 없는 감성(感性) 상품을 내놓고 있다.

도쿄도에 있는 마쓰마루(松丸)는 패턴(pattern)을 만들거나 봉제에만 전념한 입체적인 실루엣(silhouette)의 표현에 정평이 있다. 언제나 기획 제안(企劃 提案)하여 감성이 있는 상품을 만들도록 유의하고 있다. 서서 돌리는 재봉틀로 한 장씩 넣어주는 방식의 퀵 리스폰스(quick response)도 강점이다. 이번에 출품한 피케 니트(pique knit) 소재에 의한 테일러(tailor)의 숏 재킷(short jacket)은 웨이스트(waist)의 라인을 샤프(sharp)하게 함으로써 여성답게 연출하고 있다. 보텀(bottom)을 바꾸고 다양한 신(scene)에 따라 갈아입을 수 있다. 신규 개척은 물론 신상품 개발로 도전하는 등, 그 반응을 봄으로써 레벨 업(level-up)을 하려고 한다.

도쿄도의 피콘포는 다른 소재(異素材), 프린트(print), 가공 등 여러 가지 장르(佛 genre : 種類)를 복합함으로써 가치를 높이고 있다. 정성을 들인 소재·편성(編成)·염직(染織)·무늬로부터 여기저기 온리 원(only one)의 감성이 가득한 성인 여성(成人 女性)을 만들어 내는 고안(考案)을 하고 있다.

도쿄도의 추한 산업(中半 産業)은 본봉을 살린 니트제 아우터 셔츠(knit製 outer shirts)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전시회에 출품하였을 때 상담을 잘 매듭지어 새로운 거래를 만들어 냈다. 이번에는 골프(golf)로 대표되는 아우터 셔츠를 중심으로 고급감이 넘치는 신사용 니트 셔츠(紳士用 knit shirts)를 제안하였다.

이 회사의 강점은 불안정한 컷-소 소재(cut-sew 素材)에 대하여 정밀한 재단(裁斷)·봉제(縫製)·마무리 기술을 구사하여 심지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살려 제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심지(芯地)를 전용 평형 프레스(專用 平型 press)로 접착시키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금 성형 프레스(衿 成型 press)로 옷깃을 반듯하게 만든다.

와카야마현(和歌山縣)의 에이겔즈는 해외 비즈니스(海外 business)에서도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해외의 정보를 수집하고 방적 등과 협력하여 차별화한 소재를 개발한 텍스타일, 컷소, 니트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0년 2월의 프리미어 비전(Premiere Vision)에 출품한 상품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메이드 인 저팬(made in Japan)을 발신하려 하고 있다. “소비자의 시선에 의한 제안을 더욱 강화하여 상담을 하려 한다.”는 기세(氣勢)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춘하절을 의식한 슈퍼 하이 게이지(super high gauge)의 컷-소(cut-sew)나 니트를 제안하고 있다.♣